

Again 1999, 딸들에게 희망을!

박 영 숙 봉재환 이신광

오는 12월 6일, 새천년을 맞이하여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우리네 최초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이 창립 5주년을 진흥하는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 재단의 발족 제언자들(11명의 여성계인으로, 110개 여성단체 대표, 26명의 개인 지로자들), 57명의 추진위원회, 국제공동위원장들, 홍보대사들, 기부자들, 파트너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수혜자들 라 지로들 함께 화합의 자리를 고대한다.

지난 5주동안 한국여성재단은 비록 기관모임의 불확실성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지만 자기수익, 재산, 탈락, 퇴장, 노령부담 등의 나쁜으로 평등예상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 지고 있는 19만여명의 '평등지킴이'들을 만났다.

2002년부터 3년간 36개년형 공익사업, 지로기탁사업 그리고 수시지정사업 등으로 214개 단체에게 배분한 지원금은 16억여원에 불과하지만 파트너단체의 활동가들은 여성 재단이 갖는 사회적책임으로도 격려가 된다고 한다. 또한 기부자들은 평등예상을 위한 나쁜의 퇴장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어서 다정이라고 할만큼 재단은 성장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재단 본연의 업무인 모금활동과 배분사업만을 한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받을만큼의 제복을 갖는것으로 뜻을 같이 했다. 2003년에는 모든 복원 수익금의 일부를 여성의 복지를 위해 할당하도록 원주하여 여성부가 정책적 관리를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 여성인 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운동에 필요한 지원을 비롯하여 활동도 전개 하였다. 그러하여 지로자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후원자들과 명예로운 기부자로 확산되고 이를 추진하는 기부관료제도 및 제도의 개혁이며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기에 먼저 부디치기엔 문제들을 해결 해야 하는 책무도 자임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5년간의 지로실적과 정책들을 발표회를 앞으로 5주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날들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하려고 하는 일은 지난 5년 100만 기부 릴레이에서 시작하는 여성계로 300만 여성을 위한 '새날기쁨'의 활동이다. 여성의 참정권이 사회의 원동력으로 밝혀질것을 원하고 있는 우리네가 처음으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분야의 여성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일을 지로화하는데 쓰여진다.

이 일을 함께하기 위해 창립 5주년을 기념 행사에서 뜻을 같이하는 여성계 인사로 기아CEO 그리고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기침 '새날기쁨'을 출범시킨다. 이 돌림은 우리네의 현실을 전파하며 우리들 주머니를 모으려서 함께자들은 전하는 미래를 장담해 내는 주요 영향자가 되려는 것이다. 이일이 앞서는 후진국이 한국여성 재단의 새로운 꿈의 현실이다.

오는 5주년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한국여성재단이 새날에 대해선 무렵 우리들 다함께 열의와 열의로 격려를 다시 받기위해 하는 지로에 동참하라. 활동가들이 함께 주는 꿈으로 실현되라고 한다. 또한내의 앞서는 5주년을 향해 'Again 1999, 딸들에게 희망을!' 히어링을 내친다.

<‘Again 1999, 딸들에게 희망을!’>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오는 12월 6일, 새 천년을 맞으며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이 창립 5주년을 자축하는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 재단의 발족 제안자들(11명의 여성계 원로, 110개 여성단체 대표, 26명의 개인 지도자들), 57명의 추진위원회 각계 공동위원장들, 홍보대사들, 기부자들, 파트너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수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여성재단은 비록 기금모금의 목표달성은 머나먼 곳에 있지만 자기수익, 유산, 달란트, 시간, 노력봉사 등의 나눔으로 평등세상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20만여 명의 ‘평등지킴이’들을 얻었다.

2002년부터 3년 간 정기신청공모사업 지정기탁사업 그리고 수시지원사업 등으로 214개 단체에게 배분된 지원금은 16억여 원에 불과하지만 파트너단체의 활동가들은 여성재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격려가 된다고 한다. 또한 기부자들은 평등세상을 위한 나눔의 손길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 만큼 재단은 성장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재단 본연의 업무인 모금활동과 배분사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서 받을 만큼의 제몫을 찾는 일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2003년에는 로또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여성의 복지를 위해 할당하도록 요구하여 여성부가 성폭력 관련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는 국민의 여망인 맑은정치실현을 위한 유권자 운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투명하고 명예로운 기부문화 확산이고 이를 촉진하는 기부관련제도와 세제의 개혁이며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기에 먼저 부딪히게 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도 자임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5년 간의 자기성찰과 경험을 발판으로 앞으로 5년 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펴려고 한다. 우선 하려고 하는 일은 지난 5월 100인 기부릴레이에서 시작한 여성지도력 양성을 위한 ‘새날기금’의 확

충이다. 이 기금은 여성의 잠재력이 사회의 원동력으로 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여성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일을 지원하는데 쓰여진다.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뜻을 같이 하는 여성계 인사와 기업 CEO 그리고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가칭 '새날포럼'을 출발시킨다. 이 포럼은 우리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써 참가자들은 건강한 미래를 창출해 내는 주요 역할자가 되려는 것이다. 이 일의 알찬 추진이 한국여성재단의 새로운 꿈의 하나이다.

우리는 5년 전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세상에 태어날 무렵 우리가 다했던 열의와 성의, 결단을 다시 발휘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실현된다고 한다. 또 하나의 알찬 5년을 향해 'Again 1999, 딸들에게 희망을!' 파이팅을 외친다.